

특 집 |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단상



우 경 옥*

어느덧 시립도서관에 근무한 지 18년째에 접어들다. 과연 도서관 발전을 위해 나는 얼마나 성실했을까? 얼마나 지혜로웠을까?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었을까? 출근하면서, 잠자면서, 세수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나의 수석어이다. 나는 사서이므로...

우리나라의 도서관 현실은 아직도 혼란스럽고 질서 정연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원화된 체계로 처음부터 그 단추는 잘못 끼워졌지만 지나온 강물이 두 줄기라고 아무리 외친들 소용은 없는 듯... 단지 밝은 정신으로 요즘은 많이들 깨어 있는, 소신 있는 새로운 사서들이 현장과 사립도서관에도 내재해 있어 도서관문화는 한층 발전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줄기 또는 여러 갈래의 도서관 흐름이 큰 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사서들을 이끌어 주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의 할일은 한층 많아졌다.

세계적인 대 부호 빌 게이츠는 자신의 성공담을 이렇게 표현했다. '오늘날 나를 만든 것은 우리 마을에 있는 도서관이었다' 라고. 그는 지금도 공공도서관에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낸다고 한다. 도서관은 자신에게 어릴 때 미래지향적 창의력과 지혜를 키워준 곳이므로. 그는 도서관의 중요성과 잠재적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다.

* 순천시립도서관 사서, libsc@hanmail.net

또 언젠가 수년 전에 우연히 읽게 된, 어떤 작가의 도서관에 관한 글은 참으로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도서관은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영혼의 쉼터이자, 에너지 재충전소의 기능을 해 주어야 하고, 또한 도서관 본연의 역할인 정보제공센터의 기능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글을 읽고 종합적인 도서관 모습을 새롭게 그리게 되었다. 이용자들로 하여금 오게 하려면 우선 품위 있는 도서관 시설, 밝고 안락한 인테리어, 다양한 인성을 보듬을 수 있는 탭런트적인 사서기질 양성이 도서관 장서만큼이나 중요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도서관 사서는 진정 가득한 지성과 원만한 품성과 자연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밝고 긍정적인 인격체로 발돋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 싶다. 영혼의 휴식처이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곳으로 인간에게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도서관이 되려면 시설과 운영자는 열린 마음과 창의적인 운영 마인드가 살아있는 도서관인들이 도서관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누가 말했는가... 도서관 사서는 어둠의 무기력한 저승사자와도 같다고. 어쩌면 우리 도서관계 문화의 척박한 현 주소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훌륭한 사서들은 도처에 있고 그들은 열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에도 시장이나 교육행정가의 마인드에 따라 일의 가능성은 펼쳐진다. 그러나 이렇수록 더욱 요구되는 것은 지혜로운 현장사서의 역할인 듯 싶다.

공공도서관의 제대로 된 기능을 위해 동아리 조직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나, 그 마을 주민들이 무언가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논의하는 공공도서관의 모습이기에는 아직 조금 먼 것 같다. 도서관친구들이라는 자원봉사의 진정한 움직임도 아직 조금 요원하다. 실망스럽지만 꾸준히 지역주민들의 일어섬을 기대하며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현장 사서들은 한없는 부드러움 속에 번뜩이는 지혜와 예지력을 지니고 똑똑해져야 할 듯 싶다. 지역구의원과 시장과 교육장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도서관에는 최첨단의 정보를 이끌 수 있는 참고봉사사서와 최첨단 시스템과 시설 그리고 법정 기준에까지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각 자료실마다의 운영자로 사서가 존재하는 도서관 풍경은

도서관에 대한 나 혼자만의 분홍빛 꿈일까?

도서관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여 아직도 시스템과 정책에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 참으로 의문스럽다.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어린이와 주민이 가족단위로 많아질 수록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보에 빠를 것이고, 기쁨과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감성지수도 높아져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나누며 사는 공동체적인 사회를 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꿈꾸는 도서관은 바로 그런 경계에까지, 도서관 문화가 우리나라 전체 문화의 기저 속에 파고 드는 문화의 모습인 듯 싶다.

도서관에서 서로가 기쁨을 나누고 문화체험과 문화공간 향유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꿈을 키워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혼자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닌 공동체 나눔의 기쁨을 도서관에서 가져가는 그런 날을 나는 꿈꾼다. 그렇게 되려면 사서의 다양한 교육과 연수로 자긍심을 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끊임 없이 지자체와 교육청에 도서관에 관한 독려와 정책 방향에 대한 기관장의 의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연수계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편이 될 듯 싶다.

도서관만 쳐다보고 산 지 오래되니 나의 모든 사고는 도서관에 관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한쪽으로 기운 듯도 하지만, 도서관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을 유일하게 변화하는데, 떨레야 떨 수 없는 아름다운 공간 아닌가!!! 사서들이여, 열정적인 삶의 현장에서 도서관의 살아있는 문화 만들기에 모두들 진정, 행복하시길... 

